

# 국가대표 전지 훈련지 '각광'

### 익산시, 올 한해 전국규모 체육대회만 30여개 치러... 지역경제 활력

익산에서 국가대표 선수 전지훈련과 전국 규모 체육대회가 연이어 개최되면서 명실상부한 스포츠 도시로 각광 받고 있다.

특히 도내 유일의 1종 공인 경기장과 체력인증센터 등 최고의 기반 시설을 내세운 스포츠 마케팅이 활성화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최근 육상(투척) 국가대표 상비군과 국가대표 선수가 지역에서 2주간 동계 전지훈련에 돌입했다

이번 훈련은 시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대한체육회, 대한육상연맹 후원으로 추진됐다. 이라공업고등학교 선수 4명을 포함한 국가대표 상비군 국가대표 선수단 39명이 2주간 합숙하며



훈련을 진행한다.

원반의 신유진(익산) 선수, 김남훈 감독, 정지혜 선수, 정유선, 이수정 선수 등 총 5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여하며 국가대표 상비군은 포환과 원반 각 8명, 창 6명, 해머 7명 등 선수와 지도자 34명이 기량 향상을 위하여 경기장에서 구슬땀을 흘린다

이와 함께 시는 올 한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국 규모

체육대회만 30여개를 유치해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대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선수와 임원진 3만여명이 지역을 방문하며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큰 활력소가 됐다

이는 국내 최고 시설을 자랑하는 익산의 스포츠 인프라 덕분이다. 시는 도내 유일의 1종 공인 경기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웨이트 트레이닝장과 지난 2020년 문을 연 '국민체력100, 익산 체력인증센터'까지 선수들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민체력100, 익산체력인증센터는 최신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익산을 방문하는 선수단의 연령별 근력, 근지구력, 순발력, 심폐지구력 등을 측정해 운동처방까지 지원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에 도내 최초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완공되면서 명실상부한 스포츠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다.

## 익산 반다비체육센터 개관

### 도내 최초 장애인·비장애인 사회통합형 체육시설

익산에 도내 최초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완공되면서 명실상부한 스포츠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다

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스포츠 인프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는 14일 반다비체육센터와 펜싱인재 양성을 위한 '펜싱아카데미'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개관식에는 정현을 시장과 최중우 시의회 의장, 지역 정치권,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지난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 공식 마스코트인 반다비의 이름을 딴 체육시설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이다. 익산에 도내 최초로 전국에서 3번째로 건립됐다

총 162억원이 투입돼 종합운동장에 연면적 5천598㎡,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지상 1·2층은 반다비체육센터, 지상 3층은 펜싱아카데미가 조성됐다

센터는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수준동일 △농구장 크기의 다목적체육관 △헬스기구가 비치된 체력단련실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소체육관 △증강현실을 활용한 VR체험관 등을 갖췄다

펜싱아카데미는 전국 최대 규모로 펜싱파스트 15개와 사격장 등이 설치되어 전국대회 유치와 전지 훈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선수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추후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을 시장은 "센터는 장애인에게 차별 없이 공정한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지역기관, 장애인 취·창업 지원 '맞손'

### 철도공사·장애인고용공단 등과 네일케어 사업 업무협약

익산시와 지역기관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시는 14일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 네일케어(아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정현을 시장과 윤동희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장, 유성기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장, 박정우 주식회사 에스알 경영인재실장, 양중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장 등 협력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장애인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한국철도공사는 익산역 네일케어(아트) 사업을 위한 공간 제

공, 국가철도공단은 익산역 사업공간에 대한 사용승인을 협조한다

이어 주식회사 에스알은 재료비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여성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환경개선 및 업무수행 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한다

해당 서비스는 시청 종합민원과와 익산역 등 2곳에서 운영된다. 사업장 두 곳에 각각 2명씩 4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손톱 관리, 영양, 컬러 등 네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청 종합민원에서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제공일 1일 전까지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익산역점(섬섬옥수)은 당일 열차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메신저서비스

키카오플러스친구 섬섬옥수(익산역점)를 통해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며 두 곳 모두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0년 5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결실을 맺은 것으로 미취업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취·창업을 유도하고, 시민들에게는 네일케어(아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꿈을 키우는 일터이자 지친 몸과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쉼터로 소중한 공간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며 "지역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역 장애인 고용인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최근 3년 258가구 지원

군산시가 실시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신재생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지열)의 가장 보급 촉진을 위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이는 주택지원사업 신청자에게 국비보조금 이외 추가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함이다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은 한국에너지공단(그린홈) 주택지원 사업 신청 접수자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확인서를 받은 자로 2022년 98가구, 2021년 75가구, 2020년 90가구 등 꾸준히 지원을 실시했다

오는 2023년에도 태양광 106가구, 태양열 2가구, 지열 2가구의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계획 공고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 완료자에게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대기 환경에 이로움을 주는 신재생에너지원 가정보급을 꾸준히 실시해 시민편의를 증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참여기업 모집

군산시는 오는 20일까지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이하 지주청)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지주청 사업은 시가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는 현안사업 및 지역 특화사업에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3년에는 3가지 특화사업 분야에 청년일자리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지역 주력산업 회복을 위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장기동 분야에 청년 일자리를 지원해 조선업 생태

계 복원의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

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소 등), 그린 IT(이차전지, 무선통신 등), 친환경 자동차·선박 및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 산업 분야를 지원해 지역 산업구조 대전환과 더불어 탄소중립 선도도시 도약을 이루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푸드플랜(food plan) 및 식품 제조·가공·유통 등 먹거리 산업 분야에 청년일자리 지원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등에 일조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 지역 소식통

#### 호원대, 군산성폭력 상담소와 업무협약 체결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가 14일 오전 11시 군산성폭력상담소(소장 김혜영)와 대학 내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인권 보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사안 해결을 돕고 재학생 및 교직원들의 성인지각수성 향상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

다. 구체적으로는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지원 △폭력예방 교육 제공 △인권보호를 위한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강희성 총장은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군산시, 소형양배추 홍보·판촉 행사 개최

군산시는 지난 9일과 10일, 12일 3차례에 걸쳐 관내 4개 로컬푸드직매장(군산, 옥산, 군산농협, 동군산농협)에서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군산 소형양배추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판촉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 소형양배추 생산농민회(군산농민회농협,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소형양배추 생산농민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소비자들에게 소형양배추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우수성 홍보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먹거리 정책과 직연,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직원, 생산농민들이 함께 참여해 로컬푸드직매장을 이용하는 군산시민에게 소형양배추 및 루자 꼬리양배추사과즙(산들팜) 음료를 무료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소형양배추는 일반 양배추보다 크기가 1/3 작지만 아삭한 단맛이 더 강하며, 비타민 U와 K가 2배 더 높고 양배추 특유의 아린 맛이 없어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도 쉽게 즐길 수 있다. 또, 여러 방법의 레시피로 섭취가 가능하다

/군산=김판곤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